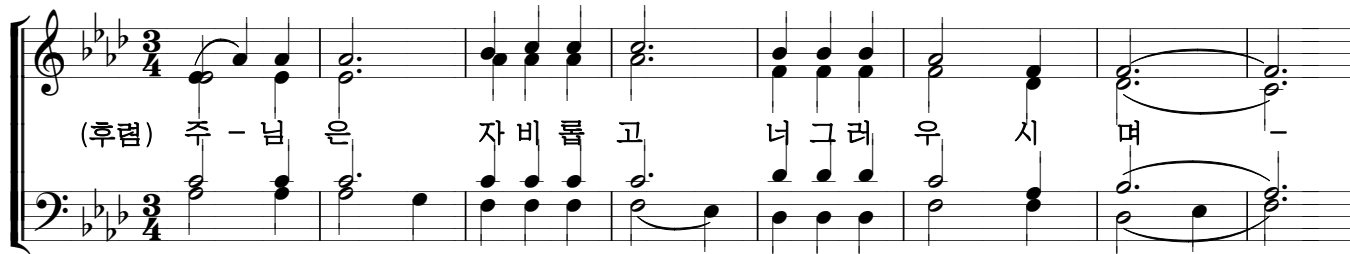


연중 제 24 주일 가해

화답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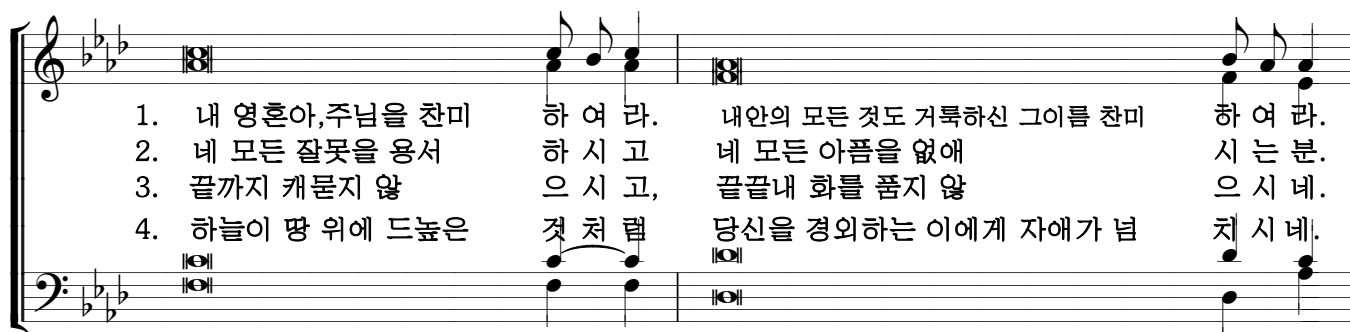
시편 103(102), 1-2. 3-4. 9-10. 11-12



(후렴) 주 - 님 은 자 비 록 고 너 그 러 우 시 며



분 노 에 는 더 디 시 나 자 애 는 넘 치 시 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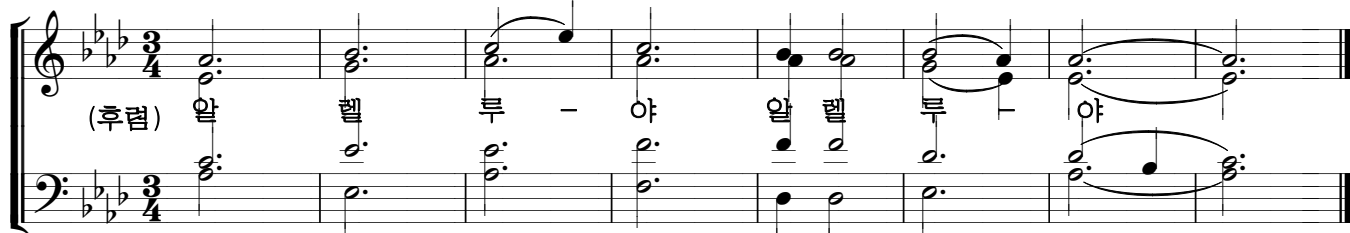


1.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 하 여 라. 내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이를 찬미 하 여 라.
2. 네 모든 잘못을 용서 하 시 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 시 는 분.
3. 끝까지 깨닫지 않 으 시 고, 끝끝내 화를 품지 않 으 시 네.
4.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 처 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 치 시 네.



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 하 여 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 - 라.
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 시 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 시 는 분.
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 으 시 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 으 시 네.
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 처 - 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 우 시 네.

알렐루야



(후렴) 알 렐 루 - 야 알 렐 루 야



주님이 말씀하신다.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 - 다. 서로 사랑하여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하 여 라.